

오룡택지 분양가 미공개 건설사 참여 제한

〈남약산도시〉

전남개발공사, 공동주택사업 62개 항목 공개해야 기회주기 오늘 도의회 임시회에서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의·의결

전남개발공사가 무안군 남약산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가 공개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열리는 제 33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남개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개발공사가 무안군 일로읍 망

월리 일대 추진중인 오룡 택지개발사업지구(39,40블록) 내 공동주택(732세대) 공급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전체 납입자본금(50억)의 10%인 5억원을 출자한다는 게 개발공사 입장이다.

개발공사는 이미 한국산업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한 총 사업수익이 219억원 규모로 평가된다는 점, 출자에 따른 32억원 안팎의 개발공사 지분의 배당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받았다.

출자 방식의 경우 기존 택지를 개발·판

매하는 것 외에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 공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개발공사측 설명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의회 분석이다.

정부가 아파트를 '분별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 공기업이 국민 형세로 '집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조치라는 게 개발공사 안팎의 분석이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개발공사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62개 분양위가 공개 항목

(택지비 4개, 토목 13개·건축 23개·기계설비 9개·전기설비공사 등 4개, 일반관리비 등 2개, 간접비 6개)를 적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박문욱(민주·목포 1) 의원 등을 중심으로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더 많은 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혀 공기업이 추진하는 데 따른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이민준(민주·나주 1) 의원은 "공기업이 '집 장사'를 하는 데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건설 원가 공개 항목을 더 늘려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조치를 마련하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 12억7천만원 판매 43개 기관·단체서 양파 1956t·깐마늘 4.5t 구매

전남도가 농가 돕기 일환으로 '사랑의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을 펼쳐 모두 12억7300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다. '사랑의 양파·마늘 사주기 운동'은 전남도가 최근 가격이 폭락해 타격을 받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도 분청, 사·군, 서울시청, 광주시청, 전라남도교육청, 농협 등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전남산 양파 1956t, 깐마늘 4.5t을 구매했다. 전남지역 공무원과 농협 임직원도 양파·마늘 1t당 더 사주기 운동을 펼쳤고, 소비자인 서울시와 광주시 공무원도 참여했다.

전남도와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한 롯데슈퍼는 전남산 양파 300t을 구매해 오는 9일까지 450여 직영점에서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펼친다.

전남도 온라인쇼핑몰남도장터에서는 양파 405t을 판매했고, 서울 상생사회에서는 무안 양파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최근 양파와 마늘 가격은 생육 환경이 좋아지면서 공급 과잉으로 크게 하락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양파 상품 20kg의 도매가격은 8800원으로, 평년(1만6233원)보다 45.8% 폭락했다. 깐마늘 역시 20kg에 9만5000원으로 평년(12만9000원)보다 26.4% 하락했다.

전남도는 각급 기관·단체와 손잡고 7월 한 달간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 '양파는 건강이다'라는 캠페인을 펼친다. 또한 사·군, 농협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해 양파와 양파죽 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김영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양파와 마늘은 무르지 않고 단단해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며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거래 행사와 판로 확대 활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4만7000t의 양파를 시장 격리하고, 정부에서는 추가 발표할 수매 비축 물량 1만5000t을 수매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2일 결정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3차 공모에 응모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가 오는 12일로 예정됐다. 사업 공모에는 (주)서진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광주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99명의 평가심의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 데 이어 평가 당일 참여 가능한 위원 33명을 최근 압축했다. 이를 가운데 사업 신청자(업체) 입회 이후 주춤을 통해 평가를 직접 할 11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공모 지침에 따르면 광주시는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업체가 총점 1000점에서 850점 이상을 얻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업체가 850점 이상을 얻더라도 광주시는 해당 업체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도 있다. 평가 요소는 개발계획·사업수행능력·공공기여방안·관리운영계획 등 4가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12일로 예정된 사업계획서 평가 이후 수일 내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41만 7531㎡ 부지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 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형호 기자 khh@



"양성평등 실천합시다" 4일 오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남 저온 농작물피해 4000여 농가에 91억원 지원

올봄 전남에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지역이 도내 18개 시·군 4000여 농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5월 전남지역 18개 시·군에서 3903ha에 걸쳐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시의 피해 면적이 1827ha로 가장 컸고 보성 394ha·영암 314ha·해남 309ha·곡성 302ha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과수가 3357ha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다. 또 밭작물 258ha·채소 107ha·특작물 181

ha도 저온피해를 봤다.

나주시의 경우 본격적인 개화기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4월 3일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뜻밖추위로 배 재배농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가에서는 개화를 앞둔 배꽃 봉우리가 열고 암술 새방은 까맣게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 열매가 맺혀도 발육 부진으로 출하기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상저온 피해를 본 농가 수를 4562 농가로 집계하고 피해 복구비로 91

억원을 산정했다. 복구비는 농약대가 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국·도비 77억 원을 시·군에 지급했으며, 재해피해 복구비 중 도비 부담액은 피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상이변에 따라 농작물 재해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지원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지식정보문화콘텐츠 기업 7곳과 투자 협약

전남도는 지난 3일 수도권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도내에 신규 창업하는 지식정보문화콘텐츠 기업 7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지역 청년 인재 56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된다.

투자 협약 기업은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와 IT기술이 접목된 융합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뉴작, 국내 최초 반려동물 액티비티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 비액티브랩, 곤충 체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나누리안 곤충연구소, 사법 취미 계층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켓프리 등이다.

전남도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지식정보문화산업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인 ICT, VR, AR, 출판, 게임, 영상, 만화, 웹툰 등 창의력·상상력을 가진 청년 인재가 곧 경쟁력인 문화·실감형 콘텐츠 산업이다.

콘텐츠산업은 투자금액 대비 청년 및 여성 고용창출이 타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고용 친화적인 산업으로,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하면서 세분화·

다변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선 7기 들어 기업유치 인센티브 시행과 적극적인 유치활동 결과 도내로 이전을 희망하거나 신규 창업하려는 기업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로 이어져 31개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이 전남에 새로운 동지를 마련해 29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전남도가 하반기부터 직접·지사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에게도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양구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투자 기업들이 전남에서 혁신적인 도전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h1 style="font-size: 2em;">임야</h1> <p>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p>	<h1 style="font-size: 2em;">투자 자모집</h1> <p>1억원에 월70만원 지급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p>
--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항 인근 5200만원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방 풍을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934㎡와 1057㎡ 공시가 1억4800, 매도 2억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500
- 월릉 등 적합 부지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5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중 전문점 시설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두암동 버스도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강정 8억4천선 하차 5억8천 매도 3천
- 동구 산수오거리 대로변 1248㎡ 병원 등 다용도 50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과 증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상어,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최고 투자 물건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임야, 992㎡, 공유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